

보 도 자 료

**DREAM
MAKE IT.**

현대경제연구원이 선정한

「휴가철 CEO가 읽어야 할 도서 10+1選」

2014. 6.

 **현대경제연구원**

1. 개요

- 선정 배경

-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최근 주도하고 있는 경제·경영 분야의 트렌드와 인문·사회 분야의 주요 이슈를 감안해
- 2014년 하계 휴가철에 CEO가 반드시 읽어야 할 도서 10권(경제·경영 6권, 인문·사회 4권)과 추가 필독서로 고전 1권을 선정

- 선정 기준 : 2013년 7월~2014년 6월 출간된 경제·경영 및 인문·사회 도서를 대상으로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도서를 선정 (*고전은 이 기준에서 제외)

-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통찰력을 갖게 하는 도서
- 주요 현상을 이해하고 경제 및 경영 방향 수립에 도움이 되는 도서
- CEO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갖추고 성찰하는 데에 유용한 도서

- 선정 방법 : 각계 리더들의 모임인 <현대경제연구원 리더스포럼> 회원, 주요 출판사 및 내부 연구원 평가를 모두 종합해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2014년 「휴가철 CEO가 읽어야 할 도서 10+1選」 >

*무순

분야	No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출간월
경제 경영 (6選)	1	르네상스 소사이어티	롤프 예센, 미카 알토넨	36.5	2014.02
	2	세계경제의 메가트렌드에 주목하라	짐 로저스	이레미디어	2014.01
	3	부자들의 생각법	하노 백	갤리온	2013.10
	4	차이를 만드는 조직	스콧 켈러, 콜린 프라이스	전략시티	2014.05
	5	아이디어 메이커	뤼크 드 브라방데르 등	청림출판	2014.05
	6	어떻게 의욕을 끌어낼 것인가	하이드 그랜트 할버슨 등	한국경제신문	2014.05
인문 사회 (4選)	7	생명이 자본이다	이어령	마로니에북스	2013.12
	8	감정수업	강신주	민음사	2013.11
	9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일본편 1,2,3	유홍준	창비	2013.07
	10	경제학자의 문학살롱	박병률	한빛비즈	2014.05
고전 (1選)	+1	정관정요	오궁	-	-

주 : 2013년 7월~2014년 6월 현재 발간 도서를 대상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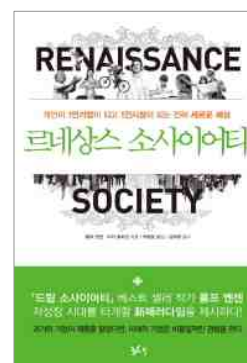
2. 추천 도서 10+1選 소개

○ 경제·경영 분야 (6選)

『르네상스 소사이어티』	롤프 엔센, 미카 알토넨 저 / 박종운 역 2014.02 / 36.5
--------------	---

저자는 과거와 같은 대량생산·대량소비 시스템은 현재의 선진국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1인생산·1인소비 시대를 맞아 3D프린터, SNS, 클라우드 펀딩 등 변화의 흐름에 동승한다면 지금의 선진국도 개도국과 같은 고성장세를 다시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래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로 르네상스 소사이어티, 그린 소사이어티, 리스크 소사이어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행복, 선한 삶 등 비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며 성장하는 르네상스 소사이어티를 가장 유력한 미래 시나리오로 판단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메가트렌드에 주목하라』	짐 로저스 저 / 이건 역 2014.01 / 이레미디어
---------------------	-----------------------------------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세계 시장의 흐름과 미래 전망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세계를 선도하던 미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의 패권은 아시아가 대신할 것이며, 미래에는 금융보다 농업이 훨씬 수익성이 높은 부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과 남한이 통일될 경우 북쪽의 값싸고 숙련된 노동자·천연자원과 남쪽의 자본·기술·경영 능력의 결합으로 일본을 넘어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부자들의 생각법』	하노 벡 저 / 배명자 역 2013.10 / 갈리온
------------	---------------------------------

2013년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독일 최우수 경제경영도서로 선정된 책으로 역사적 사례와 경제학, 심리학을 근거로 작은 생각의 차이가 부자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경제 분야의 전문가라고 자부했으나 엄청난 투자 실패를 경험하며 문제는 ‘돈’이 아닌 ‘돈을 대하는 우리의 심리’에 있음을 깨닫고 심리적 오류를 벗어나 돈을 벌고 지키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소비, 저축, 부동산, 주식, 노후 대비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밀접한 경제 현상을 자세히 살펴본 후 같은 실수를 하게 만드는 인간의 심리적 약점을 제시한다.



『차이를 만드는 조직』	스콧 켈러, 콜린 프라이스 저 / 서영조 역 2014.05 / 전략시티
--------------	--

이 책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가 한 순간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다. 맥킨지는 축적된 컨설팅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10여년 이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수행하며 경영학자들과의 협업 등을 통해 지속 성장의 비결이자 실무적으로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경영 전략을 소개한다.



『아이디어 메이커』	뤼크 드 브리방데르, 앨런 아이니 저 / 이진원 역 2014.05 / 청림출판
------------	--

이 책은 관점을 바꾸고 다르게 바라보는 방법에 관한 실용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핵심인 ‘새로운 틀에서 생각하기’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 BCG의 창의적 사고법인 틀 이론, 확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등의 토대가 된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는 책의 서술을 위해 인간의 사고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비즈니스 창의성과 행동경제학의 첨단 연구와 방대한 사례까지 활용하고 있다.



『어떻게 의욕을 끌어낼 것인가』	하이디 그랜트 할버슨, 토리 히긴스 저 / 강유리 역 2014.05 / 한국경제신문사
-------------------	--

컬럼비아대학교 동기과학센터(MSC)를 운영하는 저자는 동기 부여에 관한 과학적 원칙과 접근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인간에게는 ‘성취지향’과 ‘안정지향’이라는 두 가지 행동 동기가 있음을 밝히면서 어떤 동기가 더 지배적인가에 따라 사람을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 저자는 동기 성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 인문·사회 분야 (4選)

『생명이 자본이다』	이어령 저 2013.12 / 마로니에북스
------------	---------------------------

저자는 금융위기 이후 기존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폐해를 맞아 새롭게 맞이해야 할 패러다임으로 ‘생명자본주의(THE Vita Capitalism)’을 제창한다. 저자의 ‘생명자본주의’는 그동안 주로 생물학을 비롯, 과학 분야에서 사용된 생명애(Biophilia), 장소애(Topophilia), 그리고 창조애(Neophilia)의 세 가지 사랑을 중심 테마로 삼고 그것을 그만의 독특한 해석으로 인문학적 입장에서 발전시킨 것이다.



『감정수업』	강신주 저 2013.11 / 민음사
--------	------------------------

저자는 철학자로서 각자가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파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감정의 종류와 성격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이 요구된다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스피노자가 정의한 48가지 감정, 48권의 세계 문학의 걸작, 철학자의 48가지 어드바이스와 예술가들의 명화 45점을 바탕으로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타인의 감정을 살피고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법을 설명해준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일본편 1,2,3』	유홍준 저 2013.7 / 창비
------------------------	----------------------

저자는 한국이 일본에 미친 문화적 영향의 흔적을 찾고 그 바탕 위에서 일본 문화가 꽃피게 된 과정을 흥미롭게 탐사해 나간다. 국내편이 우리 국토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이를 아끼는 마음을 고취시키는 데에 일조했다면, 이번에 출간된 일본편은 일본의 문화유산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문화적 우수성을 확인하고 상호교류하고 섞이면서 발전해가는 문화의 진면목을 깨우쳐준다고 할 수 있다.



『경제학자의 문학살롱』	박병률 저 2014.05 / 한빛비즈
--------------	-------------------------

저자는 고전 소설과 경제학을 융합시켜 친근한 스토리를 통해 쉽게 경제 상식을 전달한다. 고전소설의 통과예처럼 여겨지는 《데미안》부터 최근 너도나도 손꼽는 《그리스인 조르바》나 《삼국지》 등 소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경제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 고전 (1選)

『정관정요』	오궁 저
--------	------

중국 역사의 황금시대를 열은 당나라 태종의 통치술과 인재등용 등에 관한 정치철학을 담은 제왕학의 고전이다. 정관(貞觀:627~649)은 태종 연호이고, 정요(政要)는 정치의 요체라는 뜻이다. 당 태종의 사후에 오궁이 저술한 정관정요는 오늘날 CEO가 리더십의 롤 모델로 삼아야 할 필독서이다

※ 본 도서는 여러 곳에서 출간되어 있으며 도서 선택은 독자에게 일임